

한글 우수성을 통해 본 한글 가치의 보편성 특수성

김슬옹**

1. 머리말
2. 연구사
3. ‘한글 우수성’에 대한 통합 규명
 - 3.1. 한글의 과학성
 - 3.2. 한글의 실용성
 - 3.3. 한글의 효용성
 - 3.4. 한글의 독창성
4. 한글의 우수성을 논의하는 까닭: 한글 가치의 맥락
5. 맺음말

1. 머리말

한글 우수성과 한글 창제자에 대한 논의와 평가가 나라 안팎으로 높아지고 있다. 현행 초등, 고등 교과서의 한글(훈민정음) 단위 설정과 2011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도 교육 내용으로 설정됨에 따라 교육 차원의 논의도 필요한 때이다. 그렇다면 한글 우수성의 실체는 무엇이며 더불어 한글의 독창성, 과학성과의 관계는 무엇이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한글 우수성 논의를 민족주의나 국수주의 담론으로 경계하는 때도 있지만, 개인의 재능과 마찬가지로 객관성과 나눔 차원의 우수성 내세우기는 권장해야 할 사항이지 경계할 문제는 아니다.¹⁾ 우리가 정작 문제 삼아야 하는 것은 한글 우수성에 대한 논저 가운데 연구 계보를 밝혀 체계적으로 논의한 경우가 단 한 건도 없다는 사실이다. 이 논제가 그 중요성에 비해 대단히 피상적으로 논의되고 소통됐다는 증거다. 김하수(2010)에서의 비판 담론은 이런 현실 때문에 매우 유용하다. 더욱이 한글의 과학성, 우수성, 독창성 각각의 개념이나 특징에 대한 논의가 무척 혼란스럽고 명확하게 학술적으로 논의되지도 않았다. 물론 한글은 과학적이기에 독창적이고 우수하므로 세 용어는 서로 혼재되어 쓰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용어가 다른 만큼 그에 따른 한글 특성 또한 엄밀하게 구별해 살펴보는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글 우수성의 실체를 먼저 명확히 자리매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글의 우수성이 특정 단원으로 구현된 것은 7차 고등학교 선택 과목인 검인정 ‘국어생활’ 11종 교과서에서였다. 이층계도 이들 교과서는 2007 교육과정에 의해 제대로 적용도 돼 보지 못한 채 역사에서 사라졌다. 2007 교육과정에서는 국민 공통 과목으로 6학년 때는 한글의 우수성을 고등학교에서는 한글의 독창성을 중심으로 배우도록 해 2011년 처

1) 김하수(2010: 117)에서는 한글 창제에 대해 “대부분의 해석은 한 시기의 걸출한 통치자가 천재적인 능력으로 매우 편리하고 과학적인 문자를 만들어 냈다는 정도의 인술이다. 그러나 이렇게 안일한 찬사 속에는 전문가들이 진지하게 물음을 제기해야 할 많은 부분을 묻어 버리게 하는 독소가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음으로 초등 국정교과서와 검인정 16종 고등 교과서로 구현되었다.²⁾ 문제는 2011 교육과정이 본격화함에 따라 현행 교과서는 또 변화를 겪게 되어 여기서는 논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는다. 더욱이 교육과정 연계 연구보다 중요한 것은 한글 우수성과 독창성의 실체를 명확히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2. 연구사

한글 우수성에 관한 논의는 한글 관련 논저에서 직간접으로 두루 언급되다 보니 연구 계보를 밝히기조차 어렵다. 연구나 논의 계보를 밝혀 쓴 논저가 한 건도 없어 더욱 그렇다. 여기서는 한글 우수성을 직접 논의 대상으로 삼은 주요 논저의 흐름만 정리하기로 한다.

논의에 앞서 용어 사용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조선시대 한글의 통칭은 언문이었으며 ‘훈민정음’은 상징적 명칭이고, 한글은 1900년 이후에 쓰인 새 용어이다(김슬옹 2011, 3장). 그러나 문자의 역사성과 일관성을 고려하면 세종대의 훈민정음을 한글로 지칭할 수도 있고 지금 한글을 훈민정음이라 지칭할 수도 있다. 여기서는 한글이란 말을 주로 사용하되, 맥락에 따라 훈민정음이란 용어를 병용하기로 한다.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세종실록 1443년 12월 30일자 기록에서였다. 사관이 “중국 한자음이나 우리나라 말이나 모두 능히 쓸 수 있으니, 글자가 비록 간결하지만, 자유자재로 바꾸어 쓸 수 있다.”라고 처음으로 언급하였다. 문자가 간결하고 글자 생성력이 높아 많은 소리를 효율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런 장점은 1446년에 세종이 펴낸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정인지가 “스물여덟 자로써 굴러 바뀔 바가 없고, 간단하고도 요령이 있으며, 정밀하고도 잘 통한

2)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에서는 “학생들이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국어를 가꾸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태도를 기르게 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라고 하여 ‘우수성’도 함께 다루고 있다.

다.”라고 재차 강조되었고, “비록 바람 소리와 학의 울음소리와 닭의 울음소리와 개 짖는 소리라도 모두 적을 수 있다.”라는 옮겨 적기의 자신감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문자 기능의 우수함과 더불어 창제자 스스로 강조한 것은 “누구든 쉽게 익혀 날마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학습의 용이성과 편의성이었다. 정인지는 이를 “슬기로운 이는 하루아침을 마치기도 전에 깨칠 것이요, 어리석은 이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라고 했으며, 정인지는 “이로써 한문 글을 해석하면 그 뜻을 알 수 있고, 이로써 송사를 들으면 그 속사정을 알 수 있다.”라는 실용적 우수함까지 언급하였다.

이러한 한글 우수성에 대해 종종 때 최세진이 훈몽자회(1525)에서 주목한 뒤 17~19세기에 이르러서야 주로 소론계 실학자들에 의해 다시 조명되었다.³⁾ 다만 실학자들이 한글 우수성에 대해 주목한 것은 주체성 차원보다는 한자음 적기의 우수성 차원이었다.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논의는 신경준(1750), 윤희(1824)의 논의다. 신경준은 『훈민정음도해』⁴⁾ 서문에서 문자의 창조성, 쓰기 편의성, 학습의 용이성, 말소리 표기 영역의 무한대성, 부녀자와 아이들 소통성 등 다섯 가지를 들었다.⁵⁾ 더욱 주목할 것은 이러한 훈민정음의 우수성은 우리나라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말소리의 대 경전으로서의 보편성을 띠고 있다고 강조했다.⁶⁾

3) 훈민정음 우수성 관련 논저는 다음과 같다. 17세기의 최석정(1678, 숙종4)의 『경세정운(經世正韻)』, 18세기의 홍계희(1751, 영조 27)의 『삼운성취(三韻聲集)』, 이사질(1751?)의 『훈음종편(訓音宗編)』, 신경준(1750, 영조 26)의 『훈민정음도해(訓民正音圖解)』, 박성원(1787, 정조11)의 『화동정음통석운고(華東正音通釋韻考)』 등이 있다. 19세기의 논의로는 정동유(1808, 순조8)의 『주영편(晝永編)』, 『현동실유고(玄洞室遺稿)』, 윤희(1824, 순조 24)의 『언문지(諺文志)』, 황윤석(1829, 순조29)의 『자모번(字母辨)』, 『화음방언자의해(華音方言字義解)』, 홍양호(1843, 헌종9)의 『훈민정음초성상형도(附訓民正音初聲象形圖)』, 강위(1864?1869?)의 『동문자모분해(東文字母分解)』 등이 있다.

4) 학선제 영인본(2007,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을 참조하였다. 신경준의 <훈민정음도해>는 강신항(1967: 56-153)에서 전문이 번역되었다.

5) 이상혁(2004: 90)에서는 서문 내용을 “첫째, 학습의 용이성, 둘째 부녀자들과 아이들이 한글을 사용하는 점, 셋째, 세종의 탁월한 업적, 넷째 표음 문자로서의 우수성” 등으로 추려냈다.

유희(1824)는 언문지 서문에서 그의 스승 정동유가 언문의 발음 적기와 의미 전달력이 매우 우수하여 오묘하다고(諺文妙) 한 것을 인용하면서, 실제 초중중성 합자례 총수가 10,250자임을 통해 그 우수성을 실용적으로 입증했다. 이런 흐름은 한글전용의 독립신문 창간(1896)으로 이루어졌다. 이 신문에 깊숙이 관여한 주시경은 <국문론>(1897.4.22~24)에서 “글쫄수가 적고 문리가 잇서 비호기가 쉬으며 글쫄가 몇시 못 되는 고로 획수를 적게 돈드려 쓰기도 쉬으니(주시경, <국문론>, 《독립신문》 1897.4.22.)”라고 그 취지를 드러내기에 이르렀다.⁷⁾

외국인이 한글 우수성에 대해 최초로 언급한 기록은 이기문(2000: 109)에서의 지적처럼 1666년(현종7) 조선에서 탈출한 하멜(Hamel)의 하멜표류기(1668)에서였다. 그는 “세 번째 것(언문)은 일반 백성이 사용하는 문자로 배우기가 매우 쉽고, 어떤 사물이든지 쓸 수 있다. 전에 결코 들어 보지 못한 것도 표기할 수 있는, 더 쉽고 더 나은 문자 표기 방법이다(헨드릭 하멜/김태진 옮김, 2003: 136~137쪽)”라고 언급하였다.

외국인에 의한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에 대한 학술적인 최초의 논의는 1892년, 헐버트의 'The Korean Alphabet II'란 논문에 의해서였다. 헐버트는 문자사에서 “이(한글)보다 더 간단하게 이보다 더 과학적으로 발명된 문자는 없다.”라고 평가하였다.⁸⁾ 한글이 가장 높은 단순성과 가장

높은 수준의 표음성을 결합한 완벽한 문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였다.⁹⁾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의 실체를 국외에 제대로 소개한 셈이다. 이밖에 외국인의 한글 연구에 대해서는 김민수 외(1997), 이기문(2000)에서 종합 정리되었다.

국내의 한글 우수성, 과학성, 독창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27년, 권덕규, 이병기, 최현배, 정렬모, 신명균 등의 한글 동인이 펴낸 『한글 동인지』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한글 우수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논의한 최초의 저술은 최현배(1927)이다. 최현배는 세계의 다른 문자와 다른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네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는 한글이 소리글 가운데서도 가장 진보된 단계에 속한다고 보았다. 둘째는 일시적 저작이면서 학술적 조직과 풍부한 소리와 정제(整齊)한 형식을 갖춘 것은 세계에 으뜸이라고 하였고, 셋째는 한글은 아예부터 민중교화의 귀한 사명을 가지고 났음을, 넷째는 한글은 내리글씨(중서)와 가로글씨(횡서)와의 성능을 갖추어 있음을 들었다. 다른 소리글과의 비교는 일반 소리글과 다른 자질문자론과 맥을 같이 한다. 민중교화의 목적성, 가로세로 기능의 편의성 등을 우수성의 핵심 요소로 들었다.

정렬모(1927)는 근대언어학의 과학성 차원에서 훈민정음을 자리매김하고 있다. 곧 정렬모는 한글이 다른 문자보다 특이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조직이 과학적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과학적 특성으로 초성, 중성, 종성의 삼분법과 발음 기관 위치에 따른 자음의 분류(아설순치후)를 들었다. 따라서 한글을 과학적으로 설명하여 세계적 확산에 맞도록 해야 한다면서 모음과 자음을 서양 음운학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이극로(1932), 이송녕(1959)은 정렬모(1927)의 계보에 따른 것이다. 이극로(1932: 390)에서는 여러 문자와 비교한 뒤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어떤 문자의 영향을 받았을가의 문제를 논하면서 “자음의 배열법을 보아서는 범

6) 正音不止惠我一方，然可以爲天下聲音大典也。

7) 이밖에도 이봉운의 『국문정리』(1897)을 비롯하여 권정산(1916)의 『음경(音經)』, 박문호(1922)의 『호산집(壺山集)』(『자음복고설(字音復古說)』, 『언문설(諺文說)』, 『이두해(俚讀解)』), 등에서도 직간접으로 한글 우수성이 언급되거나 조명되었다. 이들의 훈민정음 관련 업적은 최현배(1940), 김민수(1984), 김석득(1983), 권재선(1988), 이상혁(2004), 김동준(2007) 등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8) 이런 사실조차 제대로 조명되지 않다가 김동진(2010: 117), 이대모(2010: 41-57)에 의해 그런 사실이 밝혀졌다. 물론 최초 소개와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다르다. 이기문(1996: 6)에서는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이 국제 학계, 특히 구미 학계에서 인정 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 ‘60년대에 들어서의 일’이라 보고, 미국 하버드 대 교과서로 출판된 E.O.Reischauer and J.K. Fairbank(1960)을 들었다. 이 책 10장에서 “Hangul is perhaps the most scientific system of writing in general use in any country.(한글은 아마도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모든 문자중에서 가장 과학적인 체계일 것이라고 하였다.)”라고 언

급하였음을 근거로 들었다.

9) No alphabet was ever more simply invented or no a more really scientific plan, for the perfect alphabet is the one that unites the greatest degree of simplicity with the broadest range of phonetic power_H.B Hullbert(1892, 74)

문(梵文)의 영향을 받은 것 같고, 자형을 보아서는 혹 몽고문자를 참고한 듯하다. 그러나 물론 완전한 과학적 새 체계를 세운 이상적 표음문자를 창조한 것은 속일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결론지었다.

한글의 우수성을 가치 차원에서 정리한 것은 안자산(1926)을 발전시킨 안자산(안확, 1937)에서였다. “諺文의 優秀한 價値”를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다.¹⁰⁾

- (1) 字體가 科學的으로 된 것.
- (2) 寫音能이 豊富한 것. 字數는 少하나 世界何語의 音이라도 다 記述하기 能하다.
- (3) 學習이 容易한것. 字體가 科學的으로 된고로 學知하기가 簡易하야 今時 應用하기 能하다.
- (4) 字樣에 均齊의 美가잇는것. ㅅ음이 複雜하던지 簡少하던지 字樣이 正方形이오 字의 空間은 大小가없시 萬字同一하야 整齊하야노흔 美感이잇다.
- (5) 字劃의 積은 美術感이잇는것. 美術의 原理는 視線을 移함에 잇나니, 諺文의 字樣이 同一空簡에 잇슬지라도 其內面의 字劃은 ㅅ음에 따라 繁簡이 自在하니 多劃의 字와 少劃의 字의 間에는 視感이 自變하야 一文章의 字形은 一種美術品으로 보인다. 더욱 字劃은 方圓點角線의 美術上五 大要素를 具有하다. _6쪽.

이 글은 한글의 우수성을 직접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학 차원의 우수성을 두 가지나 설정한 것은 이 분야의 앞선 논의인 셈이다. 훈민정음의 음악적 특성을 매우 중요하게 언급한 것은 안병희(2003: 335)에서 밝혔듯이, 안자산(1926)에서 비롯되었다. 세종의 음악적 지식이 훈민정음 창제를 위한 음운론 연구의 바탕이 되었으며 훈민정음 제자 원리에 음악 원리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다. 실제 이런 점이 1940년에 발견된 훈민정음 해례본 제자해를 통해 드러났으며 한태동(2003)에 의해 규명되었다. 1926년, 1937년은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기 전이므로 매우 탁월한 통

10) 이 논의는 매우 중요하지만 안자산에 대한 종합 연구인 이기문(1988), 안병희(2003), 구분관(2003)에서 빠져 있다.

찰이었다.

한글의 우수성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것은 김성배(1978)였고, 조규태(2000)가 좀 더 구체화하였다. 이 밖에도 김형배(2005), 코리아 스토리 기획 위원회 편(2006: 78-89), 박종국(2007: 432-446), 최기호(2007), 김주원(2008) 등도 좀 더 세밀하게 우수 특성을 제시하였다. 함께 제시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한글 우수성의 명시적 항목화 비교

| | |
|---|--|
| 김성배(1978) | (1) 문자 창제의 연대와 창제자가 뚜렷하다. (2) 한글은 소리글자이다. (3) 과학적인 글이다. (4) 배우기 쉽고 쓰기 쉬운 글이다. (5) 아무리 어려운 말이라도 쓸 수 있다. |
| 조규태(2000) | (1) 한글은 음소문자이기 때문에 우수하다. (2) 한글은 한국어의 음소와 거의 1:1의 대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수하다. (3) 한글의 자음 글자는 그 글자를 발음할 때의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발음 기관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어, 글자를 보고 그 글자의 음가(소리값)를 짐작할 수 있으므로 소리글자의 특징을 잘 살릴 수 있어 우수하다. (4) 한글은 체계적인 글자이기 때문에 우수하다. (5) 한글은 음소글자이면서도 모이섬으로써 표의성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우수하다. |
| 2011학년도 초등교과서 6학년: 원진숙·박영 순 | (1) 한글은 그 제자 원리가 매우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이다. (2) 한글은 가장 적은 수의 글자로 자연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는 문자이다. (3) 한글은 세계의 문자 중에서 가장 쉽고 빨리 배울 수 있는 문자이다. (4) 한글은 세계의 문자 중에서 컴퓨터, 휴대 전화 등 기계화에 가장 적합한 문자이다. |

이와 같은 명시적 항목화는 각각의 우수 특성은 잘 드러내고 있으나 전체로 보면 체계적인 우수성 규명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우수성을 설정하는 체계적인 기준이나 분석 틀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논의 층위에 따라 다양하게 기술될 수 있고 같은 층위도 알고 보면 논리적 인

과 관계에 놓여 있다. 이를테면 서로 다른 층위의 진술을 “제자 원리가 과학적이어서 많은 소리를 정확하게 적을 수 있고 빨리 배울 수 있다.”와 같은 동일 명제로 진술할 수 있다. 이를테면 <표 2>에에서와 같은 우수성의 중층적 구조를 보면 그런 점을 잘 알 수 있다. 이 표는 기존 논의를 필자가 종합 재구성한 것이다.

<표 2> 한글 우수성에 대한 중층 구조

| 우수성 | 근거 |
|--|--|
| 한글은 말소리를 적은 자모로 최대한 많은 소리를 정확하게 적을 수 있다. | (1) 말소리가 나오는 모양이나 원리에 따라 문자를 만들었다. (2) 음운과 문자가 체계 있게 대응한다. (3) 음운과 문자가 거의 일대일로 대응한다. (4) 자음자와 모음자가 균형을 이뤄 어떤 나라 말소리든 비슷하게 적을 수 있다. (5) 자음자와 모음자 각각 체계적이고 자음자와 모음자가 만나 이루는 음절 단위도 매우 짜임새가 있다. |
| 한글은 누구나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다. | (1) 기본 글자 수가 적다. (2) 한글은 서로 관련된 글자들이 짜임새 있게 변형, 확장되어 있다 (3) 문자가 점, 수평선, 수직선, 원만으로 되어 있어 단순 명료하다. (4) 한글은 대칭 구조로 되어 있다. (5) 자음자와 모음자를 합쳐 모아쓰므로 빨리 읽을 수 있고 이해가 빠르다. |
|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응용력이 높다. | (1) 한글 자모음자가 적고 규칙적이고, 체계적이다. (2) 컴퓨터 자판 배열이 쉽다. (3) 휴대전화 자판 배열에 훈민정음 창제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 (4) 타지를 빨리 칠 수 있다. (5) 양손을 골고루 건강하게 칠 수 있다. |
| 한글은 약자를 배려한 소통 문자다. | (1) 소통의 최대 장애인 문맹을 퇴치할 수 있다. (2)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 (3) 사회적 약자의 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제되었다. |
| 한글은 독창적이다. | (1) 창제자가 분명하다. (2) 창제 시기가 분명하다. (3) 발음기관을 상형한 세계 유일의 소리글자이다. (4) 음소 문자이면서 일정한 단위로 모아쓴다. (5) 자음자와 모음자 디자인이 다르다. (6) 철학을 담고 있다. |

근거 층위도 우수성의 명제로 설정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중층 구조로

파악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고 합리적이다.

또 하나의 전제는 음소 문자라는 범주 특징은 굳이 우수성 명제나 근거로 넣을 필요가 없다. 음소 문자가 음절 문자나 뜻 문자보다 우수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사람이니까 우수한 동물이라는 식의 추상적 담론에 머무르게 된다. 한글은 자질 문자라 우수하다는 식의 독창성과 결합된 우수성이나 요인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질 문자라고 하면 음소 문자가 전제되므로 더욱 그렇다. 음소 문자가 아니고서는 자질 문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밖에 김정수(1990)는 단행본으로 역사적 차원과 한국말의 특수성, 세계적 보편성 차원에서 한글 우수성을 단점과 함께 규명하였다. 김주필(1999)에서는 창제 과정의 과학성과 독창성을 단계별 분석을 통해 논증했다. 이상혁(2002)에서는 서예적 관점의 독창성을 정리했다. 한글을 수학과 과학 측면에서 우수성을 처음으로 조명한 것은 정희성(1989)에서였다. 수학의 집합론을 통해 한글의 과학성을 규명했다. 변정용(1996)은 컴퓨터 과학 차원에서 한글의 과학성을 조명하였고, 박홍호(1994)는 문서작성 환경을 중심으로, 김슬옹(2001)에서는 자연 과학적 과학성과 실용적 과학성을 통해 훈민정음의 과학성을, 임용기(2006)에서는 기능과 구조 차원에서의 과학성을 규명했다.

북한에서의 연구는 리상춘(1958), 리영(1960), 교육도서출판 편(1970) 등 남한 못지않은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¹¹⁾ 교육도서출판 편(1970)에서 집약된 우수성으로는 첫째, 우리 글자의 우수성은 우선 주체성 있게 만들어졌다는 점, 둘째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 다음으로 우리 글자의 우수성은 인민성이 풍부한 점 등을 들고 있다. 주체성은 독창성을 말하며, 과학적 측면은 발음기관 상형을 말한다. 인민성을 우수성의 주요 특징으로 본 점이 특이하다.

11) 북한 쪽 연구사에 대해서는 김민수(1989)에서 언급된 뒤 이상혁(2011)에서 종합적으로 정리되었다.

3. ‘한글 우수성’에 대한 통합 규명

과학성은 문자 자체의 속성이고 독창성은 다른 문자와의 비교에서 나오는 속성이다. 그러나 우수성은 자체 속성과 비교 속성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므로 한글의 우수성을 과학성과 독창성보다 상위 범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¹²⁾ 또한, 문자의 우수성은 문자생활 차원에서 실용성과 효용성이 뛰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글 우수성의 하위 요소로 객관적 요소인 과학성, 비교 요소인 독창성, 실제 요소인 실용성, 효과 요소인 효용성으로 나눠 논의하기로 한다. 한글의 실용성과 효용성은 한글 과학성에 비롯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통합되어 독창성을 발휘하므로 과학성, 실용성, 효용성, 독창성 순으로 구체 특성을 기술하기로 한다.

3.1. 한글의 과학성

과학성이야말로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 과학성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수성에 대한 태도를 우월주의나 배타적 민족주의와 같은 비합리성에서 벗어나게 해 주기 때문이다. 과학은 좁게 보면 자연과학을 가리키고 넓게 보면 보편성을 바탕으로 하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이나 방법론을 말한다. 물론 넓은 의미의 보편과학은 자연과학의 발달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과학성을 정렬모(1927)에서처럼 언어과학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보편과학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여기서는 언어과학을 아우를 수 있는 보편과학 차원에서 한글의 과학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15세기 훈민정음은 근대 언어과학 수준을 이미 넘어선 것임을 김슬옹(2008)에서 입증한 바 있다. 한글은 보편과학으로 보아도 매우 뛰어난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한글은 실제로 고도로 발달한 자연과학을 배경으로 창제된

12)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우수하다’를 “매우 뛰어나다.”와 같은 절대 특성 측면, “다른 것보다 더 뛰어나다.”는 상대 평가 특성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문자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간의·혼천의(1433), 대간의·소간의(1434), 자격루(1434), 갑인자(1434), 병진자(1436), 일성정시의·규표·양부일구·현주일구·천평일구·정남일구(1437), 흠경각(1438), 측우기(1441)” 등의 주요 과학 발명품이 훈민정음 창제 전 10년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연과학의 발달 없이 과학 정신은 이루어질 수 없다. 세종대의 과학은 서양식 근대과학 관점으로 본다면 해도 매우 뛰어나다. 궁궐 안에 지은 종합과학연구소인 ‘흠경각(1438)’은 이 시대 과학 수준의 결정판이다.

여기서는 근대과학 측면에서 한글을 조명하는 것이므로 근대과학의 정신이나 특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이다. 근대과학은 간단하게 정의하기 어렵지만, 원자 발견을 통한 물질의 보편성 규명, 자연세계의 규칙성 규명, 체계적인 방법론을 통한 합리성 구현, 이런 과학 특성을 통한 자연 생성의 예측성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따라서 한글의 과학성을 최소성, 규칙성, 체계성, 생성성으로 설정하였다.

<표 3> 한글의 과학성과 구체 특성

| 과학성 | 구체 특성 |
|-----|---|
| 최소성 | 규칙성과 체계성 생성성을 가능하게 하는 바탕 속성 |
| 규칙성 | 최소 요소를 통해 최대 결과를 만들어내는 변수 중심의 규칙 |
| 체계성 | 전체 구조나 결과 차원의 짜임새 |
| 생성성 | 최소 요소를 통해 최대를 지향하는 역동적 결과. 최소성과 규칙성, 체계성의 결합으로 산출되는 가능성 |

1) 최소성

근대과학은 원자의 발견으로 물질의 보편적 특성을 밝히는 계기가 되었다. 원자의 발견이 보여주는 과학 특성을 필자는 최소성, 최소주의로 규정하였다. 최소의 물질을 통해 다양하고 역동적인 물질세계의 보편적 본질을 규명하였기 때문이다. 훈민정음 또한 최소 문자주의를 통해 복잡한 말소리를 간단하게 적을 수 있는 문자의 보편성을 달성했다.

이러한 최소성은 네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음소 문자로서

의 최소성, 둘째, 원형 문자와 기본 문자의 최소성, 셋째 종성자 만들기의 최소성, 넷째 음절 배합의 최소성이다. 음소 문자 전략에 의한 자음자와 모음자로 나눈 것 자체가 1차적인 최소주의를 달성한 것이다. 다만 이런 특성은 음소 문자의 일반 특성이므로 우수성 차원에서 내세울 바는 못 된다. 한글만의 최소주의 핵심 전략은 두 번째 원형 문자와 기본 문자의 최소주의에 있다. 이러한 최소주의의 생성성의 뿌리는 원형 문자를 극도로 추상적이면서 간결한 도형으로 만든 상형 원리에 있다. 자음자는 실제 발음 나는 곳과 발음 작용 다섯 개를 직선과 사선, 원만으로 상형하였고 모음자도 점과 직선만으로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는 거대한 우주 자연의 3요소를 상형했다.

이러한 고도의 추상화 전략은 천지자연의 소리를 정확하게 적기 위한 치밀한 정음 전략이었다(표 4). 모음에서는 거대한 자연의 소리를 포착하려는 거시 전략을, 자음에서는 사람의 발음기관을 통해 정확히 미세한 소리를 포착하려는 미시 전략을 쓰는 다중 전략을 적용함으로써 보편과 특수성의 합성과 조화를 이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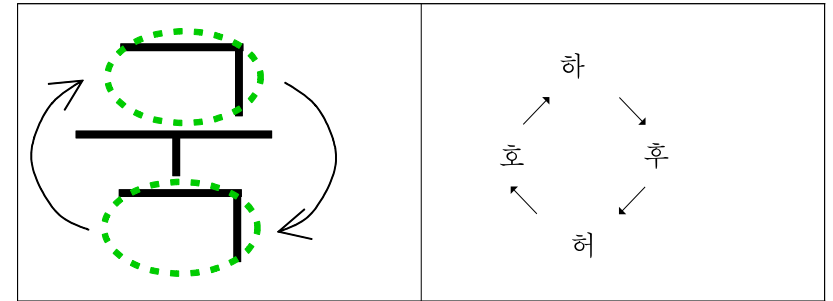
<표 4> 훈민정음 자음자와 모음자의 상형전략과 실제

| 상형전략과 원리 | | | 상형방식 | 문자 성격 | 원형 문자 | |
|----------|-----|-------|-----------------|-----------------|-------|---|
| 정음 전략 | 자음자 | 오행 전략 | 발음 기관 상형하기 |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 아음(목) | ㄱ |
| | | | 혀뿌리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 | 설음(화) | ㄴ | |
| | | | 입 모양 | 순음(토) | ㅁ | |
| | | | 이 모양 | 치음(금) | ㅇ | |
| | | | 목구멍 모양 | 후음(수) | ㅇ | |
| | 모음자 | 삼재 전략 | 자연 현상 상형하기 | 하늘의 둥근 모양 | 양성(천) | · |
| | | | 땅의 평평한 모양 | 음성(지) | ㅡ | |
| | | | 사람의 서 있는 모양 | 중성(인) | ㅣ | |
| | | | | | | |
| | | | | | | |

이러한 최소 원리가 더욱 중요한 것은 같은 계열의 문자 사이에 유연성이 높아져 문자 실용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셋째와 넷째 최소성은 <그림 1>을 통해 잘 드러난다.

<그림 1> 자음자 최소주의와 음절 배합의 최소주의



세 번째의 최소주의는 <그림 1>의 첫 번째 그림에서 보듯 종성자의 도형화 방식을 초성자와 함께 함으로써 자음자 최소주의를 달성했음을 보여준다. 훈민정음 해례본 예의에서 ‘종성부용초성’으로 규정한 원리다. 이는 성과 운으로 나누는 중국의 이분법과 다른 우리말 음운의 독창적 분석인 삼분법에서 비롯된 것이다.

네 번째 최소성은 <그림 1>의 두 번째 그림에서 잘 드러난다. 단일 자음자에 네 개의 모음자를 최소한의 이동만으로 결합해 최대의 글자를 만들어내는 위상수학적 원리에 의한 최소주의다(정희성: 1989). 최소의 자음자와 모음자를 최소의 공간 이동만으로 최대의 글자를 생성해 내는 원리이다.

2) 규칙성

규칙성은 과학성의 주요 특성이다. 근대과학은 자연과 세계의 속성과 변화의 규칙성을 발견하고 과학적 상상력을 더하여 법칙화한 것이다. 사과는 오랜 세월 지구 여기저기에서 떨어졌다. 뉴턴은 그러한 자연 현상에서 규칙성을 발견하고 과학적 상상력을 더해 만유인력법칙으로 체계화하여 근대과학의 꽃을 피웠다. 문자의 규칙성 또한 다르지 않다. 문자는 수많은 말소리에서 규칙성을 찾아 도형화한 것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표 5>의 전체 짜임새가 규칙성의 표상이지만 여기서는 확장 과정이 중요하다.

<표 5> 자음자 확장에 따른 구성도(김슬옹, 2011: 154, 수정 변용)

| 기본 자음자 | | | 운용자 | | |
|---------------------------|-----|-----|------------------------|---------------------|------------|
| 원형 문자 | 가획자 | 이체자 | 병서 | | 연서 |
| | | | 각자병서 | 합용병서 | |
| 이음 | ㄱ | ㅋ | ㅇ | ㄱ | |
| 설음 | ㄴ | ㄷ ㅌ | ㄹ | ㄴ | |
| 순음 | ㅁ | ㅂ ㅃ | | ㅁ | 병, 몽, 풍, 땡 |
| 치음 | ㅅ | ㅆ ㅅ | ㅇ | ㅅ ㅆ | ㅅ, ㅅ, ㅅ, ㅅ |
| 후음 | ㅇ | ㅇ ㅎ | | ㅇ | ㅁ, ㅁ |
| 5자 | 9자 | 3자 | 6자 | 10자 | 4자 |
| 기본 자음자 17자 | | | 병서 16자 | | 연서 4자 |
| 초성 23자 | | | 14자 | | |
| * 실제 문헌에 쓰인 ㅇㅇ·ㄴ 포함하면 25자 | | | * 실제 문헌에 쓰인 ㅁ 포함하면 15자 | | |
| 실제 쓰인 자음자 37자 | | | | 특정 한자음 표기 3자(ㅇ·풍·땡) | |
| 모두 40자 | | | | | |

<표 6> 모음자 구성도(김슬옹, 2011: 155, 수정 변용)

| 기본 모음자 | | | 합용모음자 | | |
|------------|-----|-----|-----------|-----------|-----------|
| 원형 문자 | 합성자 | | 두 글자 합용자 | 와의 합용자 | |
| | 초출자 | 재출자 | | 와 한 글자 합용 | 와 두 글자 합용 |
| 양성 | · | ㅛ ㅜ | ㅟ ㅠ | 이 ㅓ ㅕ ㅗ ㅛ | ㅟ ㅠ |
| 음성 | ㅡ | ㅟ ㅠ | ㅟ ㅠ | 이 ㅓ ㅕ ㅗ ㅛ | ㅟ ㅠ |
| 중성 | | | | | |
| 3자 | 4자 | 4자 | 4자 | 10자 | 4자 |
| 기본 모음자 11자 | | | 합용모음자 18자 | | |
| 모두 29자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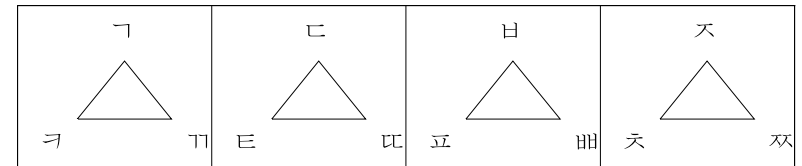
원형문자를 바탕으로 <표 7>에서의 확장문자가 이루어진 원리와 기본문자를 기준으로 응용문자가 이루어진 원리나 규칙이 무엇이나는 것이다. 곧 가획 원리에 의해 확장문자가 이루어지고 배합, 합성, 응용 원리를 통해 체계적인 응용문자 확장이 이루어졌다.¹³⁾

<표 7> 훈민정음 '원형문자-기본문자' 중심 글자수 관계

| 갈래 | 원형문자 | 확장문자 | 기본문자 | 응용문자 | 최종 |
|-----|------|------|------|------|----|
| 자음자 | 5 | 12 | 17 | 23 | 40 |
| 모음자 | 3 | 8 | 11 | 18 | 29 |
| 합계 | 8 | 20 | 28 | 41 | 69 |

결국 훈민정음에 반영된 문자 규칙성은 첫째, 가획과 배합, 합성의 규칙성을 들 수 있다. 자음자는 획 더하기와 배합을 통해 각각 거센소리와 된소리의 규칙적인 대응을 보여준다(그림 2). 또한, 모음은 점과 수평선, 수직선의 합성이 규칙적이다.

<그림 2> 자음자의 음운과 문자 대응의 규칙성



둘째, 음운과 문자 대응의 규칙성을 들 수 있다. 흔히 한글을 자질문자라고 한다. 문자 자체가 음운의 성질을 과학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Sampson(1985)의 저서로 본격화된 용어로 이렇게 문자에

13) 모음자의 경우는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가획의 원리가 아니라 합성 원리로 설명하였다. 친지인 삼재사상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합성의 원리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도형 관점에서 보면 아래아 점은 가획 점으로 볼 수 있고 이 점이 이미 용비어천가에서 짧은 획으로 변형된 것을 보면 역시 도형 차원에서는 가획으로 보아야 한다. 그림은 이정호(1972: 100)에 의함.

확인할 수 있다. <표 12, 13, 14>를 보면 문자 체계가 마치 현대 음운학 체계에 맞추어 창제된 듯 매우 조직적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음성학자인 이현복(1981)은 한글로 세계 음성 기호를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 온 것이다.¹⁴⁾

<표 12> 현대 자음 음운체계와 한글 배치표

| 소리 내는 방법 | | 소리 내는 자리 | | 두입술 | 윗잇몸 혀끝 | 경구개 혀바닥 | 연구개 혀뒤 | 목청 사이 |
|----------------|-----------------|---------------|-------------------------------|-------------------------------|--------------------------------|------------------|-------------------------------|---------------|
| | | 파열음 (터짐소리) | 예사소리 | 입술소리 (양순음) | 혀끝소리 (치조음) | 센입천장소리 (경구개음) | 여린입천장소리 (연구개음) | 목구멍소리 (후음) |
| 안울림소리 (장애음) | 파열음 (터짐소리) | 예사소리 | p ㅍ | t ㅌ | | | k ㅋ | |
| | | 된소리 | p' ㅍ' | t' ㅌ' | | | k' ㅋ' | |
| | | 거센소리 | p ^h ㅍ ^h | t ^h ㅌ ^h | | | k ^h ㅋ ^h | |
| | 파찰음 (불같이 소리) | 예사소리 | | | tʃ ㅈ | | | |
| | | 된소리 | | | tʃ' ㅈ' | | | |
| | | 거센소리 | | | tʃ ^h ㅈ ^h | | | |
| 마찰음 (같이소리) | 예사소리 | | s ㅅ | | | | | |
| | 된소리 | | s' ㅅ' | | | | | |
| | 거센소리 | | | | | | | h ㅎ |
| 울림소리 (공명음) | 비음(콧소리) | | m ㅁ | n ㄴ | | | ŋ ㅇ | |
| | 유음(호름소리) | | | r ㄹ | | | | |

<표 13> 현대 단모음 음운체계와 한글의 배치표

| 혀의 앞뒤 | 혀의 높이 | | 진설 모음 | | 후설 모음 | |
|-------|-------|-----|-------|-----|-------|----|
| | 평순 | 원순 | 평순 | 원순 | 평순 | 원순 |
| 고모음 | i ㅣ | ü 기 | i ㅡ | u ㅜ | | |
| 중모음 | e ㅔ | ö ㅖ | ə ㅚ | o ㅝ | | |
| 저모음 | ε ㅙ | | a ㅓ | | | |

14) 이밖에도 한글 국제음성기호를 제안한 이는 권재선(1999)을 비롯해 진용옥 외(1999), 서정수 외(2003), 진용옥(2004), 반재원·허정윤(2007) 등이 있다.

<표 14> 이중모음 음운체계와 한글의 배치표

| j계 이중모음 | w계 이중모음 |
|----------------------|-------------|
| je je ja jə jo ju ij | we wɛ wa wə |
| 계 ㅟ ㅞ ㅟ ㅞ ㅟ ㅞ ㅟ ㅞ | 계 ㅟ ㅞ ㅟ ㅞ |

규칙성의 증거 예로 제시했던 <표 11>의 음절표에서 드러나 있지만, 네모 공간 안에서 '자음자-모음자-(자음자)'의 체계적 배열도 과학적이다.

4) 생성성

최소의 문자를 통해 최대의 글자를 생성해 내는 힘이 생성성이다. 생성성은 소수의 기본 요소에 최소의 규칙 적용을 통해 수많은 현상이나 결과를 만들어 내는 이치이다. 한글에서는 자음자, 모음자 결합을 통해 음절자를 생성해 내는 특성을 말한다. 이는 최소성, 규칙성과 체계성에 이미 함의 되어 있는 특성이기도 하다. 생성성은 로마자 알파벳과 같은 음소 문자의 공통 특성이라 할 수 있으나 로마자 알파벳은 규칙성이 없으므로 한글과 질적으로 다르다.

무엇보다 한글 모아쓰기의 장점은, 자음과 모음을 결합하여 수많은 음절글자를 생성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¹⁵⁾ 이는 과학적 원리의 실용성을 확인시켜 주는 장점이기도 하다. <표 11>에서 보여주는 현대 자모음들만 보더라도 받침 없는 음절자 399자(초성 19자 × 중성 21자), 받침 있는 음절자 10,773자(399자 × 중성 27자) 등 무려 11,172자나 된다. 15세기 자음자와 모음자는 현대말보다 훨씬 많으므로 생성 가능한 글자 수도 더욱 많았다.

이러한 숫자는 한글의 과학성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만큼 말소리에 대한 표기영역이 넓다는 방증이다. 이런 맥락 때문에 헐버트(Hulbert, 1892: 74)는 그런 점을 간파하고 가장 넓은 음운 표기력

15) 모아쓰기야말로 훈민정음의 가장 독특한 독창성이다. 음소 문자로 창제되었음에도 우리말 특성에 맞게 모아쓰기로 표기법을 정한 것은 세종의 가장 창의적이 문자 창제 전략이었다.

(the broadest range of phonetic power)을 가진 문자라고 했다. 정인지가 훈민정음은 천지자연의 소리를 적는 천지자연의 문자라고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언급한 것은 그런 맥락에서였다. 그래서 “글자의 소리로는 청탁을 잘 가릴 수 있고, 풍악의 노래로는 곡조 가락이 잘 고루어져서, 쓰기에 갖추이지 아니함이 없으며, 어떤 경우에라도 통하지 않는 것이 없어, 비록 바람 소리와 학의 울음소리와 닭의 울음소리와 개 짖는 소리라도 모두 적을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선언했던 것이다.

이러한 한글의 생성성은 디지털 시대에 더욱 그 장점을 발휘하고 있다. 이진수를 통해 무한성을 생성해 내는 컴퓨터 원리와 최소 문자로 최대의 글자를 만들어 내는 한글의 생성 원리는 비슷하기 때문이다. 변정용(1996)에서는 훈민정음 초성자, 중성자, 종성자 각 문자의 조합 방식을 모두 활용하여 음절자를 생성하면 다음과 같이 3억 9천 자(39,856,772,340)까지 가능함을 계산해 냈는데 이는 생성성의 극명한 증거라 볼 수 있다.

$$\text{초성자 집합 농도 } |C1| = 17 + 172 + 173 = 5219\text{자}$$

$$\text{중성자 집합 농도 } |V| = 11 + 112 + 113 = 1463\text{자}$$

$$\text{종성자 집합 농도 } |C2| = |C1| + \{\lambda\} = 5220\text{자}$$

$$\text{전체 집합 농도 } |H| = |C1| \times |V| \times |C2| = 39,856,772,340$$

글자

3.2. 한글의 실용성

문자 실용성의 핵심은 실제 언어생활에서 얼마나 요긴하게 쓸모가 있는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용성은 사용성, 소통성, 응용성, 교육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실제 언어 주체가 언어생활에서 한글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 언어생활의 근본인 소통 측면에서 어떻게 기능하느냐, 상황과 맥락에 따른 응용이 잘 되느냐 그 모든 것을 제대로 가능하게 하는 교육과 학습의 상호 행위에는 어떤 구실을 하느냐이다.

<표 15> 한글 실용성의 속성과 구체 특성

| 실용 속성 | 구체 특성 |
|-------|-------------------------------|
| 사용성 | 한글 주체의 한글 사용에 따른 문자 기능의 실용성 |
| 소통성 | 주체 상호 간의 한글 사용에 따른 문자 기능의 실용성 |
| 응용성 | 한글의 매체 활용에 따른 실용성 |
| 교육 | 한글 교육에 따른 한글 교육과 학습의 실용성 |

1) 사용성

사용성은 문자 해독 차원의 기본 문식성을 말한다. 개인의 자유로운 문식성은 사회적 의사소통의 바탕 구실을 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개인의 정체성이나 일상의 행복 요건을 구성하므로 한글 사용 능력은 고급 문식성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렇다면 한글 사용의 실용성은 성인 비문해율(문맹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립국어원에서 2008년에 조사한 김창원 외(2008) 결과에 의하면, 40대 이하의 성인 비문해율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⁶⁾

2) 소통성

소통성은 한글이 쌍방향 소통이나 공동체 소통에서 도구적 구실을 의미한다. 물론 도구적 구실로 한정하면 나쁜 소통의 도구도 인정해야 하므로 어떤 소통인가에 대한 또는 왜 소통하는가에 대한 담론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도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기본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질적 소통 문제는 더 많은 요인을 고려해야 알 수 있는 그다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한글 실용적 소통의 긍정성은 한글전용의 흐름과 문자족의 확산에서 찾을 수 있다. 엄지족의 발달은 한글의 긍정적 구실의 대

16) 물론 이 조사에 의하면 70대 비문해율은 20.2%나 된다. 이러한 요인 때문에 선진국 평균 비문해자 1.4%에 우리는 1.7%로 더 높다. 70대 비문해율은 문자 요인보다는 6.25와 같은 극심한 후진국 시절에 어린 시절을 보낸 특수 사정이 반영되어 있다. 이런 특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 보고서에서 “한글이 아무리 훌륭한 문자라고 해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117-118쪽).”라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표적인 사례이다. 또 오늘날 한글전용의 양상도 한글 사용의 실용성을 입증해 주는 척도가 된다. 국한문 혼용이나 한글전용이냐는 것은 개인 취향에 따른 선호도의 차이일 뿐 이제는 한글전용이 사회의 주류 문체가 되었다. 그만큼 한글의 실용성이 확대되어 입증된 셈이다.

세종은 1차적으로는 글말로 말미암은 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차적으로는 완벽한 문자와 조화되는 정음 세상을 위해 한글을 창제했다. 그밖에 복합적인 동기와 목적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동기와 목적은 소통 문제였다. 세종이 직접 지은 서문에서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소통은 오늘날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어려운 문제다. 조선과 같은 신분제 사회에서 가장 이상적인 소통의 길은 민본주의에 얼마나 충실 하나에 달려 있다. 세종은 민본주의에 충실했고 훈민정음은 민본주의의 핵심 구실을 하는 문자가 되었다. 한글은 어떤 목적에서건 한자와 이두를 모르는 하층민을 배려해서 창제되었을 뿐 아니라 한자 생활에 익숙한 지배층에게도 요긴한 문자로 창제되었다. 실제로는 신분제의 한계로 평등한 소통 도구가 되기는 어려웠지만 최소한의 의사소통의 도구는 되었기에 더욱 큰 의의가 있다.

3) 응용성

응용은 다른 곳이나 새로운 곳에 적용하는 것이다. 디지털 기기에서의 한글 사용이 한글 응용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컴퓨터 자판에서는 왼손과 오른손을 골고루 빨리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 배열이 이루어졌고 휴대전화 자판은 합성과 가획의 훈민정음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여 다른 문자와 비교할 수 없는 매우 편리한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

<표 12> 휴대전화 자판에 적용된 훈민정음 제자원리

| 이름 | 배치도 | | | 표시 자모수 |
|--------|-----|----|-----|----------------------------------|
| 천지인 | ㅣ | · | ㅡ | 자음자: 14 모음자: 3 — 모두 17 |
| | ㄱㅋ | ㄴㄹ | ㄷㅌ | |
| | ㅂㅍ | ㅅㅎ | ㅈㅊ | |
| | * | ㅇㅁ | # | |
| EZ | ㄱ | ㄴ | ㄷ | 자음자: 6 모음자: 6 — 모두 12 |
| | ㄹ | ㅁ | ㅂ | |
| | ㅅ | ㅇ | ㅣ | |
| | 획추가 | ㅡ | 쌍자음 | |
| SKY II | ㄱㅋ | ㅣㅡ | ㄷㅌ | 자음자: 14 모음자: 10 — 모두 24 |
| | ㄷㅌ | ㄴㄹ | ㄱㅋ | |
| | ㅁㅂ | ㅅㅎ | ㅂㅍ | |
| | ㅈㅊ | ㅇㅎ | ㅌㅍ | |

남경완(2008)을 비롯한 기존 연구에서는 입력 방식만을 추출하였다. 그러나 휴대전화에서 입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모 글자 배치이다. 기본 자음자 24자를 모두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SKY II 예외)과 연관된 문자를 같은 글쇠 안에 배치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훈민정음 제자 원리를 적용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천지인 방식은 모음 최소주의를 극대화한 것이며, EZ 방식은 자음자 최소주의를 극대화한 방식이다. 또한, 천지인 방식은 합성 원리를 극대화한 것이며 EZ 방식은 획추가 방식을 극대화한 것이다. 세 회사 모두 기본 모음자 외의 모음과 쌍자음자, 겹자음자를 배제한 것은 공통이다.

또한, 휴대전화에서 음성으로 이름과 번호를 검색할 수 있는 것도 한글의 뛰어난 응용성의 사례다. 이처럼 한글은 모바일 환경에서 로마자 알파벳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응용력을 극대화하여 실용성과 편의성을 드러내고 있다.

4) 교육

한글은 교육과 학습에 모두 탁월한 실용성을 갖고 있다. 그것은 한글의 과학성과 실용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정인지가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고 아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열흘 이내에 배울 수 있다.”라고 장담을 했는데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이미 문자 자체에 그러한 교육이 함의 되어 있어 복잡한 교재나 설명서 없이도 가능하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사진1>과 같은 한 장짜리 음절표만으로도 교육할 수 있었고 그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진 1> 19세기 유통되던 전통 한글 음절표



3.3. 한글의 효용성

효용성은 한글 사용에 따른 효과로 “쓸모나 보람이 있는 성질(표준국어대사전)”을 말한다. 일종의 실용성 덕분에 발생하는 효과이다. 한글의 효용성은 한글 사용으로 생기는 영향 차원의 사회적 효용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효용성은 문자생활에 따른 편리성, 경제성, 건강성, 조화성

으로 설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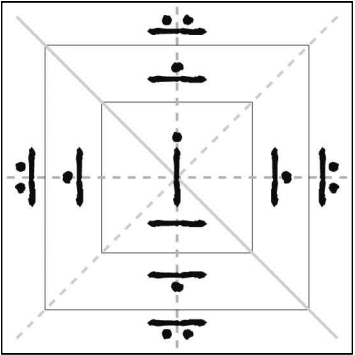
<표 13> 한글 효용성의 속성과 구체 특성

| 실용 속성 | 구체 특성 |
|-------|-------------------------------------|
| 편리성 | 한글 사용 주체가 한글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편하고 이로운 효용성 |
| 경제성 | 한글 사용으로 경제적 효용성 |
| 건강성 | 한글 사용으로 몸의 효용성 |
| 조화성 | 한글 사용으로 외적 요소와의 어울림, 효용성 |

1) 편리성

한글 사용의 편리함은 문자 해독 차원과 일반적인 독서 수준의 편리함이 있다. 첫 번째 문자 해독 차원에서 편리성은 한글의 과학성, 실용성에서 오는 종합적 효과이지만 첫째 핵심 이유는 문자가 간단한 도형으로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그라미와 직선과 대각선만으로 이루어져 쉽게 읽고 쓸 수 있다. 또한 <표 16>과 같이 대칭 구조로 되어 있어 인지가 쉽고 역시 쓰기 편하다.

<표 14> 자모음자 기본자 대칭 갈래

| 갈래 | | 예 | |
|-----|---|-------------|-----------------|
| 자음자 | 한 글자 대칭 | 좌우 대칭 | ㅂ ㅎ ㅎ ㅎ ㅅ ㅈ ㅊ ㅌ |
| | | 상하 대칭 | ㄷ ㅌ |
| | | 대각선 대칭 | ㄱ ㄴ |
| | | 좌우상하 대칭 | ㅍ |
| | | 좌우상하 대각선 대칭 | ㅁ ㅅ |
| | | 대각선 역대칭 | ㄹ |
| | 두 글자 대칭 | ㄱ ㄴ (ㄱ) | |
| 모음자 |  | | |

곧 자음자 모음자의 디자인 특성, 도형 문자로서의 특성, 대칭 구조의 문자 특성 등으로 쓰기 쉽고 읽기 편하다. 이밖에 독서 능력 차원의 편리성은 모아쓰기로 인한 독해의 편리성을 들 수 있다. 이점에 대해서는 미국의 Jared Diamond.(1994: 109)에서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단위보다는 크고 단어보다는 작은 음절단위로 조합되어 있으며, 수직으로 쓰거나 수평으로 쓰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 단지 28개의 알파벳만을 이용하면서, 음절단위로 소리를 조합함으로써 빨리 해독하고 이해할 수 있다(번역: 김미경, 2006: 61).”라고 극명하게 언급한 바 있다.

음절단위의 모아쓰기는 자모 풀어쓰기보다 의미 집약도가 높아 독해

의 편리성을 가져다준다. 이를테면 로마자 알파벳 ‘ganan’이라 표기하면 ‘가난’인지 ‘간안’인지 구별되지 않지만, 한글은 명확하게 구별되어 인지가 빨리 된다. 중국사람 ‘江澤民’의 발음은 ‘장쩌민’이다. 이를 한글로 표기하면 ‘장쩌민’이 되어 한자와 1:1 대응이 되어 편하다. 그러나 영어로는 Jianzemin’이 되어 한자 단위와 대응이 되지 않는다.

2) 경제성

문자사용의 궁극적 목적은 편리한 생활에 있다. 생활의 핵심은 경제 활동이다. 경제 활동에서 경제 활동 인구의 문자 해독력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17) 한국인의 한글 사용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직접적 영향을 끼쳤다고 볼 때 한글의 우수성의 하나로 경제성을 설정할 수 있다.

서양의 역사가 증명하듯 산업발달과 민주주의, 인쇄술은 맞물려 발전해 왔다. 특히 로마 알파벳을 바탕으로 하는 구텐베르크 인쇄술의 발전이 민주주의와 산업발전의 지렛대가 되었다(김미경, 2006:167).

한국의 경제 성장 역시 교육의 힘이었고 한글 전용이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정보화 시대 한국 경제의 주축이 되고 있는 IT 산업에서 한글의 역할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증언하고 있다. 조선은 이러한 한글을 철저한 비주류 문자로 묶어 두어 큰 경제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조선 후기 한글 소설과 한글 보급이 근대화에 일정한 역할을 한 것만은 분명하다.

3) 건강성

한글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효용성은 그동안 거의 주목해 오지 않았다. 이는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증명되었다. 곧 자판 사용에서 왼손 오른손을 골고루 사용하는 균형 타자가 건강성의 핵심이다. 이는 우리말이 자음과 모음이 골고루 발달하여 있고 문자 또한 자음자와 모음자가 균형을 이루어 자판에서 자음자는 왼쪽에 모음자는 오른쪽에 합리적 배치가

17) 문자와 경제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는 앨버턴 가우어/강동일 옮김(1995: 320-321)에서 자세히 언급되었다.

가능한 데서 비롯된다.¹⁸⁾ 실제로는 자음자를 더 많이 치지만 다행히도 실행키와 삭제키가 오른쪽에 있어 균형 타자가 좀 더 세밀하게 이루어진다.

가장 많이 쓰는 영어 쿼티 자판은 한 손 쓸림 현상이 심하다. 빈도수가 높은 'school'만 하더라도 '원원오오오오'와 같이 왼손 연타 두 번, 오른손 연타 네 번을 쳐야 한다. 그래서 영어는 오래 치면 어깨결림증 현상이 생긴다. 그러나 한글은 왼손 오른손을 골고루 교대로 사용해 오래 사용해도 어깨결림증이 생기지 않는다.

4) 조화성

조화는 어울림이다. 조화는 개체의 특이성을 존중하되 그러한 특이성이 관계와 집합으로 하나로 어울리는 특성을 말한다. 곧 한글의 조화는 한글이 외적 대상이나 매체, 요소들과 어울리는 정도를 말한다. 이를테면 한글과 거리의 간판, 펼침막 등 모든 요소와의 조화력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한글은 문자 자체의 조화성이 문자를 사용하는 사람과의 조화와 문자를 사용하는 사람끼리의 조화, 문자와 기계와의 조화를 가능하게 했다.¹⁹⁾

3.4. 한글의 독창성

18) 자음자와 모음자의 균형은 결국 모음자의 발달된 체계를 의미한다. 영어 알파벳의 모음자의 불균형과 대조되는 특성이기 때문이다. 영어알파벳은 한글로는 간단히 표시되는 `ㄱ, ㅋ, ㆁ, ㆁ` 등은 발음과 표기가 어렵다.

19) 이러한 조화성은 문자 자체 조화가 바탕이다. 문자 자체의 조화성은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자음과 모음의 조화이다. 이는 자음자와 모음자의 균형성이 문자에 반영된 특징을 말한다. 영어 알파벳도 대표적인 음소문자이지만 모음자와 자음자가 균형을 이루지는 못한다. 이를테면 **strike**의 경우 문자로 보면 '자자자모자모'이다. 그러나 한글로 적으면 '스트라이크'로 '자모자모자모자모'가 되어 균형을 이룬다. 둘째, 초성자와 중성자, 종성자의 조화이다. 분절된 세 차원의 음소 또는 문자가 때로는 초성과 중성, 때로는 초성, 중성, 종성이 여섯 가지의 형식(하/후/회/홍/환)으로 조화를 이룬다. 셋째, 음절 단위의 집합 조화이다. 수많은 음절이 조직적으로 배열된 것이 바로 조화의 특성이다.

한글의 독창성은 한글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성을 말한다. 문자가 사용되는 구체적인 역사성과 사용 맥락을 보면 독창적이지 않은 문자는 없다. 똑같은 맥락 속에서 쓰이는 문자는 없기 때문이다. 문화 상대주의 관점을 도입한다면 각 문자의 독창성은 분명해진다. 그러나 한글의 독창성은 문화 상대주의 차원의 독창성과는 차원이 다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 독창적이며 그러한 독창성의 효용성은 무엇이나 차원의 독창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한글의 우수성과 직접 연관되는 독창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본다면 과학성, 예술성, 철학적성, 창제맥락을 주요 독창적 속성으로 설정할 수 있다.

<표 15> 한글 독창적 속성과 특성

| 독창적 속성 | 구체 특성 |
|--------|-------------------------------------|
| 과학성 | 한글은 제자 원리와 문자 구조가 과학적이어서 독창적이다. |
| 예술성 | 한글은 도형, 디자인, 음악 특성 때문에 독창적이다. |
| 철학적성 | 한글은 철학 사상과 원리에 의해 만든 글자라 독창적이다. |
| 창제맥락 | 한글은 창제자, 창제 시기, 창제 목적 등이 분명해 독창적이다. |

1) 과학성

한글이 독창적 문자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한글의 과학성에 있다. 이는 한글만의 절대적 독창성에 해당한다. 과학성은 증명할 수 있고 명확한 한글만의 특성으로 우수성과 연계되어 있다. 이때의 과학성은 앞에서 논의한 것과 같으며 기능 차원의 실용성과 효용성을 아우르는 근본 바탕으로서의 독창성이다.

2) 예술성

예술 차원의 독창성은 형식미에 해당하는 기하학 차원의 도형과 미학 차원의 디자인과 보이지는 않지만, 제자 원리 차원에서 적용된 음악 특성으로 나눌 수 있다.

사실 모든 문자는 추상적 기호라는 측면에서 디자인이다. 그런데 한

글의 도형 또는 한글 디자인은 다른 문자와 다른 독창성이 있다. 한글은 점과 직선과 원만으로 구성된 도형 문자이다. 또한, 자음자와 모음자의 모양이 <표 19>에서 보듯, 뚜렷하게 구별되어 독창적이다. 특히 모음자는 모아쓰기의 기준 역할을 하므로 위아래 좌우로 뺄어 나갈 수 있는 완전 대칭 구조로 되어 있다. 영어 계통의 문자뿐 아니라 러시아어 등 자음자와 모음자가 따로 존재하는 그 어떤 문자도 자음자와 모음자가 디자인이나 체계로 보나 한글처럼 확연히 구별되지 않는다. 모음 맵시의 규칙성은 자음자의 결합 효율성을 높여 주었다.

<표 16> 로마자 알파벳과 한글의 자음자와 모음자

| | | |
|----|-----|--|
| 영어 | 자음자 | b, c, d, f, g, h, j, k, l, m, n, o, p, q, r, s, t, v, x, z |
| | 모음자 | a, e, i, o, u, (w, y) |
| 한글 | 자음자 |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
| | 모음자 |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한글은 모음자 중심으로 문자 음절 단위로 모아쓰므로 독창적이다. 음절은 모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소리의 날덩이다. 그런데 한글은 문자도 모음자 중심으로 모아쓴다. 그래서 자음자와 모음자가 체계적으로 결합하여 구성된다. 이런 방식이 한자의 네모 단위로 부수를 모아쓰는 것을 모방했다고 하지만 모아쓰는 차원이 아예 다르다. 한자는 소리 단위와 아무 관계없는 요소들을 글자마다 자의적으로 모아쓴 것이지만, 한글은 모음자를 기준으로 소리와 관련지어 규칙적으로 모아 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음절자 단위로 모아쓰는 특성 때문에 로마자 알파벳 류와는 달리 가로쓰기와 세로쓰기가 모두 가능하다. 한자나 일본의 가나 문자도 가로, 세로쓰기가 가능하지만, 한글은 이들 문자와는 달리 문자 자체의 체계적 짜임새와 필연적 관계가 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던 옛 시대에 나중에 쓰는 모음자를 오른쪽에 배치함으로써 마치 가로쓰기 시대를 예견한 듯한 문자 배치의 효율성을 높여 주었다.

이러한 모아쓰기의 독창성에 대해서는 김미경(2006: 61)에서 “현대의 언어학자들이 한글이 읽기 어려울 만큼 독창적인 문자라고 칭찬하는 이유는 세종대왕이 음소단위로 문자를 창제한 동시에 이것을 모아서 음절 단위로 표기하는 방식을 고안했다는 점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글은 다층적으로 설계된 일종의 입체 문자이다. 한글은 로마자 알파벳과 같이 자음자와 모음자를 분리한 음소 문자이지만 그 밖에도 ‘궁상각치우’ 음악의 원리를 반영한 음률 문자이다(다음 <표 20> 참조). 음률 문자로서의 특성은 II. 연구사에서 언급했듯이 한태동(2003)에서 입증된 바 있다. 그러한 특성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기에 여기서 자세한 언급은 생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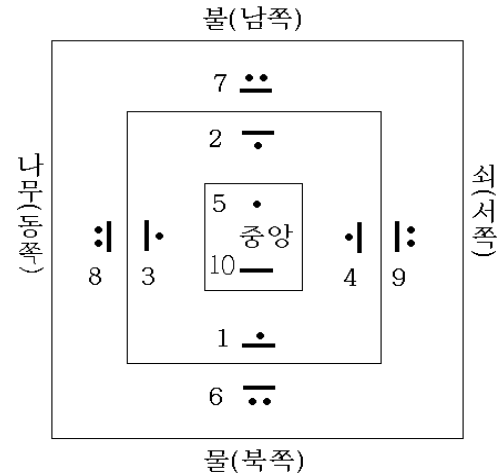
3) 철학적

한글은 철학적 독창성에 의해 창제되었고 그런 특성을 함의 하고 있다. <표 20>에서 보듯이 한글처럼 치밀한 철학을 직접 표상하고 상징하는 문자는 인류 역사에서 유례가 없다.

<표 17> 자음의 오행론 분류(발음기관 차례 제배열)

| 구분 \ 오음 | 목구멍소리 (후음) | 어금니소리 (아음) | 혀소리 (설음) | 잇소리 (치음) | 입술소리 (순음) |
|------------|---------------|---------------|----------------|------------------|-----------------|
| 자음 | ㅎ ㆁ ㆏ ㆑ | ㄱ ㅋ ㆁ ㆑ | ㄷ ㅌ ㄸ ㄹ [ㄷ] | ㅌ ㅍ ㅊ ㅌ ㅍ [ㅌ] | ㅂ ㅍ ㅃ ㅍ |
| 발음기관 성질 | 깊고 윤택함 | 착잡하고 깊 | 예민하게 움직임 | 단단하고 부러짐 | 모지고 합함 |
| 발음 특성 | 허하고 통함 | 아무지고 실함 | 구르고 날림 | 부스러지고 걸림 | 넓고 큼을 머금음 |
| 사철 | 겨울 | 봄 | 여름 | 가을 | 늦여름 |
| 방위 | 북 | 동 | 남 | 서 | 중앙 |
| 오행 | 물 | 나무 | 불 | 쇠 | 흙 |
| 오음 | 우 | 각 | 치 | 상 | 궁 |
| 오상 | 지 | 인 | 예 | 의 | 신 |
| 오장 | 콩팥 | 간 | 심장 | 허파 | 지라 |

<그림 4> 가운뎃소리의 수와 음양오행(김슬옹, 2011: 160)



자음자는 주요 발음기관을 다섯 군데로 나누고 그 성질에 따라 오행의 철학적 의미를 부여했다(표 20). 그것은 자의적인 의미 부여가 아니라 발음기관 성질과 발음 특성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이는 배경 철학의 구체적 적용을 통해 소리 질서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전략이다.

모음자도 천지인 삼재 사상과 <그림 4>와 같이 음양오행 사상과 수리 철학까지 적용해 음양의 조화에 체계적인 질서를 부여했다.

4) 창제맥락

마지막으로 창제자와 창제 날짜, 창제 동기와 목표 등의 창제 맥락의 독창성이다. 문자사에서 이처럼 창제 맥락이 분명한 것은 한글이 유일하다. 이런 한글의 독창성은 한글이 세종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한글은 창제자(세종), 창제 날짜(음력 1443년 12월), 펴낸 날짜(음력 1446년 9월 상한)를 정확히 알 수 있다.²⁰⁾ 세종 단독 창제라는 사

20) 창제 사실을 알린 실록의 날짜는 음력 1443년 12월 30일이지만 이 날짜는 달별 종합 기사이므로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다. 이러한 창제일을 기념일로 삼은 북한은 북한의 훈민정음 연구의 권위자인 류렬(1992, 485)의 증언에 의하면, “세종 25년 12월(음력)은 1444년 1월이 기본으로 되므로 그 달의 중간인 1월 15일을 잡아서 우리글을 만든 기념일로 삼는다.”라고 말하고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 간행 사실을 알린 실록 기록도 음력 1446년 9월 29일로 달별 종합 기사이지만, 다행히 훈민정음 해례본에 9월 상한으로 기록되어 있어 이를 기준으로 양력으로 환산해 10월 9일로 잡게 되었다.

실은 실록 기록과 1446년에 펴낸 훈민정음 해례본 기록과 정확히 일치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훈민정음과 같은 문자 창제는 천재적 통합 지성과 아이디어, 일정 기간 몰입할 수 있는 절대 권력과 환경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창제자가 분명하다 보니 창제 동기와 목적 또한 분명할 뿐만 아니라 한글 창제 동기와 목적이 다층적이고 하층민을 배려한 문자라는 점이 독창적이다. 한글은 다목적용으로 창제되었고, 그에 따른 다양한 기능을 충족시켰다.

김민수(1984: 138)에서는 이러한 특성에 대해 “창제목표가 원대하다.”라고 평가한 뒤 “民意 上達은 정치의 民主化요 思想表示는 문화의 촉진이요, 固有文字란 국가의식이다. 이러한 원대한 목표 아래 만들어졌음은 秦始皇의 焚書坑儒한 史實과 대조가 되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4. 한글의 우수성을 논의하는 까닭: 한글 가치의 맥락

한글 우수성의 실체 규명을 통해 왜 우리가 한글의 우수성을 따져야 하는지는 어느 정도 드러난 셈이다. 그러나 왜 이 시점에서 이러한 우수성을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를 뜻한다. 이 논문은 우수성 자체를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므로 왜 한글의 우수서인가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흐름만 정리하기로 한다.

한글의 우수성을 논의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한글이 지닌 가치 때문이다. 한글의 가치는 한글은 왜 중요한가와 한글을 사용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등을 아우른다. 가치는 보통 실질 가치와 상징 가치로 나눌 수 있다. 실질 가치는 문자의 효용성과 같은 실체 사용에 따른 가치이고 상징 가치는 공동체 중심의 정신적 가치를 말한다. 또한, 이러한 실질 가치와 상징 가치는 밀접한 상호 작용 속에서 다양하게 가치를 그려낸다. 한글은 실질 가치가 뛰어나기에 상징 가치도

뛰어난 대표적인 문자이다.

이러한 한글의 가치는 두 계열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계열은 현실과 이상 측면이고 둘째 계열은 보편과 특수 계열이다. 뛰어난 가치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현실 속에서의 가치도 있고 이상적인 가치도 있다. 또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보편 가치도 있고,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특수 가치도 있다.

1) 특수 가치

한글의 특수 가치는 한글의 독창성과 한국 사회와 문화 속에서의 가치를 말한다. 곧 특수 가치는 한국 또는 우리만의 가치이므로 역사적 가치, 문화적 가치, 주체적 가치, 창조적 가치 등을 들 수 있다.

역사적 가치는 한글이 창제되기까지의 배경, 창제와 반포,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시련과 발전 등의 뜻을 내포하는 가치다. 문자로 보면 한자, 일본어, 영어, 나라로 보면 중국, 일본, 미국 등 강대국과의 갈등 속에서 한글은 역사적 가치를 형성하고 발휘해 왔다. 일제 강점기 때 한글은 일본 글자에 비해 실질 가치는 낮았다 하더라도 상징 가치가 높아 독립운동의 힘이 되었다.

문화적 가치는 한글을 통해 드러나는 우리 문화의 가치를 말한다. 이러한 가치는 실질 가치보다는 상징 가치로 기운다. 문화는 매우 복합적인 현상이지만 언어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물론 한글은 언어 가운데 문자와 글말로 한정되지만, 한글은 배달말의 독특한 소리 세계와 풍부한 입말 문화를 거의 완벽하게 옮겨 놓을 수 있고 그 때문에 문학을 비롯한 수많은 언어문화가 문자화될 수 있었다.

주체적 가치는 한글이 우리 겨레의 정체성을 표상하고 자부심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온 가치를 말한다. 실질 가치와 상징 가치 모두 중요한 가치이다. 주체적 가치는 그것이 위협받을수록 더욱 높아지는 일종의 역설적 가치이기도 하다. 일제 강점기 때 한글의 저항적 가치나 요즘 영어 몰입 때문에 한글의 위상 축소로 주체적 가치 중요성이 높아지는 것을 통해 그런 점을 알 수 있다.

창조적 가치는 현실의 변화 속에서 응용력을 발휘하는 가치를 말한다. 디지털 시대에 더욱 실질 가치를 발휘하는 한글의 힘은 이제 더는 논의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2) 보편 가치

보편 가치는 특수 가치와 맞대응하는 가치로 공간과 시간의 경계를 넘어선 가치를 말한다. 따라서 과학적 가치, 생태적 가치, 인성적 가치(민본주의), 미학적 가치 등을 설정할 수 있다.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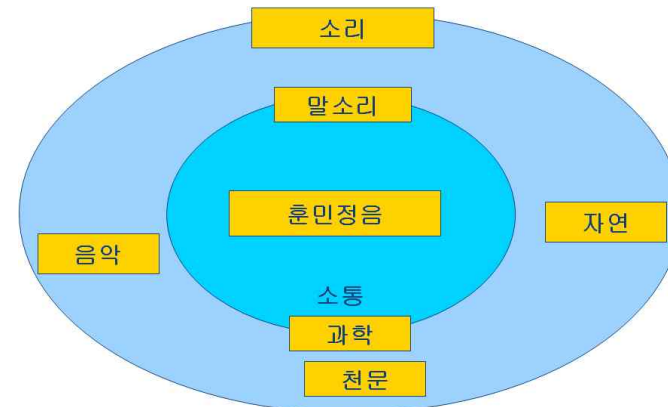
과학적 가치는 한글 그 자체가 문자과학(김슬옹: 2001)이라는 측면과 앞 장에서 논의한 과학성에서 드러나 있으므로 여기서는 줄이도록 한다.

생태적 가치는 사실 한글의 과학적 가치에 앞선 가치이다. 세종이 과학적인 문자를 만들려고 해서 과학적인 문자가 된 것이 아니라 천지자연의 소리 일부로서의 말소리에 가장 적합한 문자를 만들다 보니 과학적인 문자가 된 것이기 때문이다(有天地自然之聲 則必有天地自然之文 훈민정음 해례본 정인지 서문). [그림 5]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세종은 천문의 이치를 탐구하고 음악을 통해 자연과 사람의 소리 이치를 파악했다(한태동: 2003).²²⁾

미학적 가치는 한글의 유클리드 기하학을 반영한 도형 문자이면서 디자인 요소의 뜻을 내포한 그래픽(디자인) 문자라는 것에서 드러난다(한재준: 1996, 이해숙2005).

인성적 가치는 민본주의를 말한다. 한글이 하층민만을 배려하여 창제된 문자는 아니지만, 하층민과의 소통이 중심 목표인 것만은 분명하다. 절대 왕정의 임금이 하층민을 배려한 문자를 만들어 실제 그렇게 사용되

[그림 5] 훈민정음 생태적 구성도



도록 했다는 것 자체가 민본주의의 극명한 표상이고 실체이다. 한글은 지배층도 염두에 둔 문자이므로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동일 문자를 공유(나눔)한다는 것 자체가 문자 혁명이었다.

한글의 보편 가치의 핵심은 한글의 과학성과 나눔(인성) 정신에서 찾아야 한다. 문자의 과학성과 하층민을 배려했던 그런 정신을 우리가 되새기고 배워 나가는 것이 보편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다. 문맹 퇴치에 이바지한 사람들에게 주는 세종대왕상은 그런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3) 현실 가치

현실 가치는 실제 생활 속에서 문자 사용 주체를 통해 실천되는 가치를 말한다. 따라서 실용적 가치, 효용적 가치, 자중감의 가치, 문식성으로서의 가치를 들 수 있다.

현실 가치는 상징 가치보다는 실용 가치에 치우친 가치이다. 실용적 가치와 효용적 가치는 실용성과 효용성으로서의 우수성에서 자세히 다뤄므로 여기서는 줄인다.

자중감의 가치는 특수 계열의 주체성 계열과 연결된다. 현재 우리 현실은 한글 우수성과 비교하면 한글에 대한 자중감은 지나치게 낮다. 가

21) 램지 교수는 “S. Robert Ramsey.(2010)에서 한글의 보편성을 자세히 언급하고 한글 날은 그런 보편성을 기리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설론했다.

22) 이러한 세종의 사상은 훈민정음 해례본에도 어느 정도 드러나 있지만, 더욱 자세한 것은 이순지가 대표로 저술한 ‘제가역상집’, 성현이 세종 때 정리한 ‘악학궤범’에 자세히 드러나 있다.

장 합리적 지성을 발휘해야 할 대학에서 한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수조차 영어 강의와 영어 면접을 통해 뽑을 정도로 한글은 지나치게 폄하되고 있다. 영어 몰입 때문에 한글의 자중감이 매우 필요하므로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통한 자중감 실현이 중요하다.

문식성 가치는 한글을 통한 읽기, 쓰기 능력과 같은 기본 문식성에 따른 가치를 말한다.

4) 이상 가치

한글의 이상적 가치는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일종의 완전히 실현하고 싶은 꿈과 같은 가치를 말한다. 바로 소통의 꿈, 조화의 꿈, 공동체의 꿈, 문화발전의 꿈으로서의 가치를 말한다.

한글은 인간의 문자가 지향할 수 있는 최고의 이상을 담았다. 한글을 한민족, 한국의 문자로만 가둘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런 문자 보편주의를 살려 인도네시아의 짜아찌아족은 한글을 그들의 문자로 삼았고 인도네시아 정부를 이를 2010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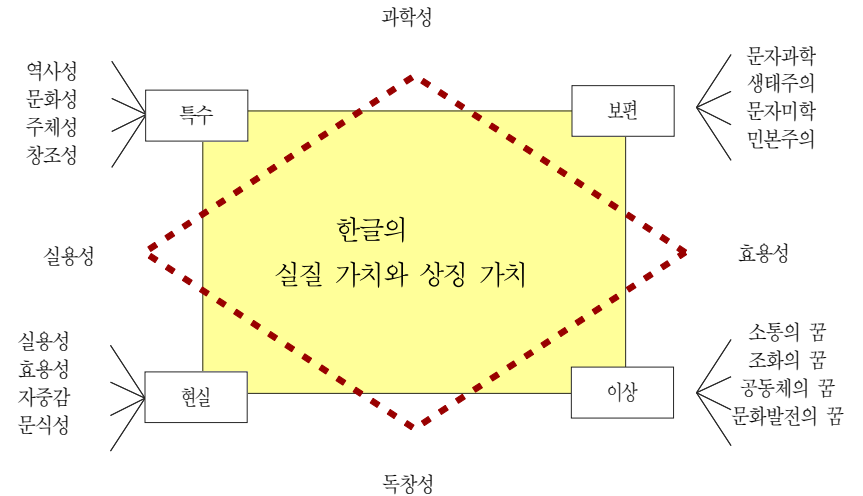
문자의 이상은 소통과 조화이다. 그러한 소통과 조화를 통해 공동체와 문화발전의 이상을 실현해 나간다. 그러한 소통과 조화를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늘 갈등을 겪기 마련이다. 완벽한 조화와 소통을 이룰 수 없는 것이 현실 세계이기도 하다. 더 중요한 것은 더 나은 소통, 더 나은 조화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느냐가 중요하다.

한글의 우수성이 대구 중학생 왕따 자살 사건에서처럼 폭력 문자로 악용된다면 오히려 독이 된다. 그러므로 한글의 진정한 가치는 한글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사람들의 주체 전략에 달려 있다. 문자를 통한 표현 욕망과 소통 능력은 사람다움의 기본 잣대이다. 우리는 한글의 그러한 실질

23) 전태현(2011)의 지적처럼 짜아찌아족의 한글 채택에는 한글 우수성 측면보다 경제와 정치 요인이 강하게 작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강력한 한글 외적 조건 속에서도 한글 문자 나누기가 이루어진 것은 한글 우수성이 필수 바탕으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가치를 통해 공동체의 꿈과 문화발전의 꿈을 이뤄간다. 이상의 논의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6]과 같다.

<그림 6> 한글의 가치 구성도



5. 맺음말

이 논문은 기존의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 과학성에 관한 논의를 한글의 우수성을 중심으로 통합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그동안 학술 차원이나 사회 담론 차원에서 무수하게 논의되어 온 흐름을 이 글에서 처음으로 주요 계보를 밝혔다. 한글의 우수성을 우월주의로 내세우거나 그러한 흐름을 배타적 민족주의로 비판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그 실체를 객관적으로 드러내 보자는 의도에서 논의하였다.

한글 우수성의 하위 요소로 과학성, 실용성, 효용성, 독창성 네 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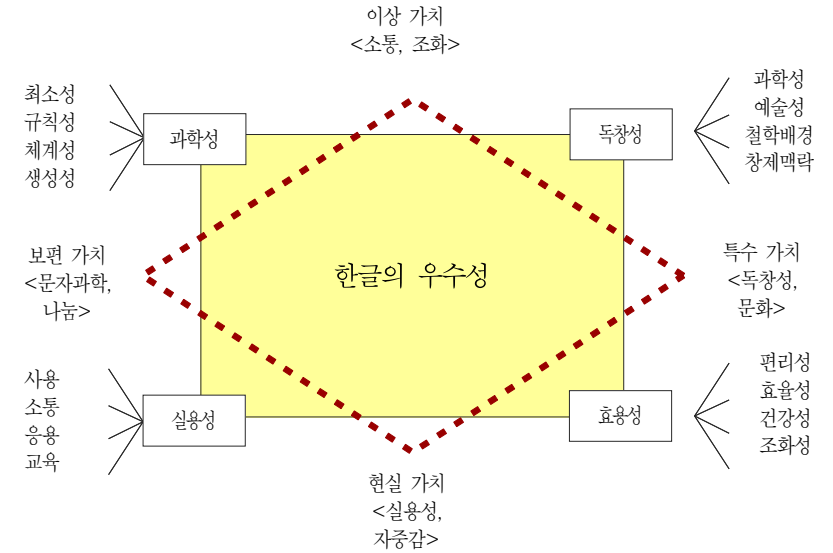
를 설정하였다. 네 요소 각각의 네 가지 특성을 통하여 모두 열여섯 가지의 우수성의 특성을 밝혔다. 이러한 우수성의 주요 요소들이 중층적으로 서로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테면 과학성은 우수성을 구성하는 주요 하위 요소이면서 구성요소인 독창성의 하위 요소도 된다.

<표 21> 한글 우수성의 세부 특성에 따른 기본 내용 구성

| 범주 기준 | 범주 특성 | 세부 특성 | 내용 |
|-------------|-------|-------|--|
| 질 대 (객관) 특성 | 과학성 | 최소성 | 한글은 문자 만든 원리와 문자 체계에 최소주의 과학이 적용되었다. |
| | | 규칙성 | 한글은 문자 확장과 자모 결합이 규칙적이다. |
| | | 체계성 | 한글은 자음자와 모음자, 음운과 문자 대응 등이 체계적이다. |
| | | 생성성 | 한글은 최소의 자소를 통해 최대의 글자를 생성하고 표기할 수 있다. |
| 실 제 특성 | 실용성 | 사용 | 한글은 문맹률이 거의 없고 한글전용으로 사용성이 입증되었다. |
| | | 소통 | 한글은 도구적 소통력이 매우 뛰어난 문자다. |
| | | 응용 | 한글은 디지털 기기 등에 응용이 잘 되는 문자다. |
| | | 교육 | 한글은 문자 학습과 교육의 실용성이 매우 뛰어나다. |
| 효 과 특성 | 효용성 | 편리성 | 한글은 쓰기 쉽고 읽기 편하다. |
| | | 경제성 | 한글은 경제적 효용성이 뛰어나다. |
| | | 건강성 | 한글은 디지털 환경에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문자다. |
| | | 조화성 | 한글은 주변 환경, 주변 요소와 조화가 뛰어나다. |
| 상 대 특성 | 독창성 | 과학성 | 한글은 과학적이어서 독창적이다. |
| | | 예술성 | 한글은 도형 특성, 문자 디자인과 음악 특성을 갖춘 것이 독창적이다. |
| | | 철학배경 | 한글은 음양 오행론과 천지인 삼재 사상 등의 철학을 갖고 있다. |
| | | 창제맥락 | 한글은 창제자와 창제 날짜와 동기과 목표 등이 분명하다. |

이렇게 한글 우수성의 맥락을 밝힘으로써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 교육의 이론적 근거와 실체를 세우고 그 의미를 부여하였다. 우수성에 관한 논의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7> 훈민정음 우수성



한글 우수성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한글의 실질 가치와 상징 가치를 논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글 우수성이 무엇이며 왜 우리는 한글 우수성에 더욱 주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 참고문헌

강신항(1967). 『韻解 訓民正音 研究』. 한국연구원.
 김민수 편(1992). 『주시경 전서』. 탑출판사.
 교육도서출판 편(1970). 『조선어』. 평양: 교육도서출판
 권재선(1988). 『국어학 발전사』(합본). 우골담.

구본관(2003). 安自山の 언어관과 국어 연구. 『어문연구』 1권 1호(봄호). 어문연구회. 367~391쪽.

김동진(2010). 『파란눈의 한국혼 험버트』. 참좋은친구.

김미경(2006).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한글』. 자우출판사.

김민수 외(1997). 『외국인의 한글 연구』. 태학사.

김민수(1984). 『國語政策論』. 탑출판사.

김민수(1989). 『증보판 북한의 국어연구』. 일조각.

김석득(1983). 『우리말 연구사』. 정음문화사.

김성배(1978). 한글의 우수성과 국어순화. 『정훈』 58. 국방부. 64~67쪽.

김정대(2008). 한글은 자질문자인가 아닌가?: 한글에 대한 자질문자 공방론.. <한국어학> 41. 한국어학회. 1~33쪽.

김슬옹(2001). 훈민정음과 한글 과학성에 대한 교육 전략. 『교육한글』 14. 한글학회. 31~66쪽.

김슬옹(2008). 세종과 소쉬르의 통합언어학적 비교 연구. 『사회언어학』 16권 1호. 1~23쪽.

김슬옹(2011). 『세종대왕과 훈민정음학(개정판)』. 지식산업사.

김정수(1990). 『한글의 역사와 미래』. 열화당

김주원(2008). 『훈민정음』 소개와 그 의미: 대한민국을 넘어 인류 문화유산으로. 국립국어원 편. 『알기 쉽게 풀어 쓴 훈민정음』. 생각의나무. 21~36쪽.

김주필(1999). 한글의 과학성과 독창성. 『논문집』 1. 국제고려학회. 191~230쪽.

김차균(2008). 한글의 운용 방법의 우수성과 세계 공용 문자화. 『대전문화』 17. 대전광역시. 9~29쪽.

김창원 외(2008). 『국민의 기초 문해력 조사』. 국립국어원.

김하수(2010). 한글의 사회문화사적 함의. 『인문과학』 91집.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109~121쪽.

김형배(2005). 한글, 모든 언어의 꿈. 『말과 글』 104호(가을호). 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 47~51쪽.

남경완(2008).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를 통해서 살펴본 핸드폰 한글입력 방식에 대한 연구. 『한국어학』 41. 325~356쪽.

렴종률(1994). 훈민정음은 독창적인 글자리론에 기초하여 만든 가장 과학적인 글자. 『조선어문』 93. 평양. 과학백과사전 종합출판사.

리상춘(1958). 훈민정음의 자랑. 『말과 글』 1호(58년 1호).

리영(1960). 우리 글자의 과학성. 『말과 글』 1호(60년 1호).

박병채(1985). 문자 발달사상에서 본 한글. 『국어 생활』 3. 국어연구소. 32~40쪽.

박종국(2007). 『훈민정음 종합 연구』.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박홍호(1994). ‘한글의 과학성’ 정밀 분석: 한글 왜 과학적인가. 『과학동아』 9권 10호 (10월호). 동아사이언스. 98~129쪽.

반재원·허정윤(2007). 『한글 창제 원리와 옛글자 살려 쓰기: 한글 세계 공용화를 위한 선결 과제』. 역락.

변정용(1996). 한글의 과학성. 『함께여는 국어교육』 29(가을호). 전국국어교사모임. 62~76쪽.

서정수 외(2003). 『한글 전자 발음기호』. 한글문화세계화운동본부(한세분).

안병희(2003). 安廓의 生涯와 한글研究. 『안자산의 국학연구와 애국계몽운동』.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안자산(1926). 諺文의 淵源(일본어). 朝鮮史學 1.

안자산(1937). 諺文의 價値와 進化. 『계명시보』 44호. 6~7쪽.

앨버틴 가우어/강동일 옮김(1995). 『문자의 역사』 새날.

이극로(1932). 訓民正音의 獨特한 聲音 觀察. 『한글』 5. 조선어학회. 198-201쪽: 『國語學論叢』. 정음사. 1948. 재수록.

이기문(1988). 안자산의 국어연구. 『주시경학보』 2. 탑출판사.

이기문(1996). 현대적 관점에서 본 한글. 『새국어생활』 6권 2호. 국립국어연구원. 3~18쪽.

이기문(2000). 十九世紀 西歐 學者들의 한글 研究. 『학술원논문집』 39. 대한민국학술원. 107~155쪽.

이대로(2010).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한글로만 쓴 교과서 험버트가 쓴 ‘스민필지’의 의미와 가치. 『한국인보다 한글을 더 사랑한 미국인 험버트(한글날 564돌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사)험버트박사기념사업회. 41~57쪽.

이상익(2002). 훈민정음의 자소적(字素的) 독창성-서예의 관점에서-. 고영근 편. 『문법과 텍스트』. 서울대 출판부. 47~60쪽.

이상혁(2004). 『훈민정음과 국어 연구』. 역락.

이상혁(2011). 북쪽 국어학자의 훈민정음 연구 분석과 학문적 계보. 『우리어문연구』 39집. 우리어문학회. 275~299쪽.

이승녕(1959). 言語學에서 본 한글의 優秀性. 『지방행정』 8권 74호. 대한지방공제회. 23~29쪽.

이정호(1972). 訓民正音圖에 對하여. 『백제연구』 3. 충남대 백제연구소. 99~110쪽.

이현복(1981). 국제음성문자와 한글음성문자-원리와 표기법. 과학사.

이혜숙(2005). 디자인으로서의 한글과 디자이너로서의 세종.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용기(2006). 훈민정음의 구조와 기능의 과학성. 『國語學論叢: 李秉根 先生 退任記念』.

- 대학사. 1415~1438쪽.
- 임용기(2008). 세종 및 집현전 학자들의 음운 이론과 훈민정음. <한국어학> 41. 한국어학회. 115~156쪽.
- 전태현(2011). 짜아짜아족 한글 도입의 배경의 의의. 『문화권에 따른 한국어언어문화 교육 방안(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55~68쪽.
- 정렬모(1927). 聲音學上으로 본 正音. 『한글 동인지』 1. 조선어학회. 57~61쪽.
- 정희성(1989). 한글문자의 구조원리에 대한 과학적 고찰. 『전자통신ETRI Journal』 10권 4호. 한국전자통신연구소. 99~117쪽.
- 조규태(2000). 한글의 우수성. 『번역하고 풀이한 훈민정음』. 한국문화사. 171~177쪽.
- 진용옥 외(1999). 『국제정음기호(IPH) 표준 제정의 타당성 연구』. 한국전산원.
- 진용옥(2004). 악물에 기초한 다국어 정음 표기와 정보화 문제. 『세종 탄신 607돌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우리의 소리와 말은 어떻게 만났는가』. 한국국악학회·한국어정보학회.
- 최기호(2007). 유비쿼터스 시대 한글의 우수성과 한국어의 세계화 교육. 『한국어정보학』 9권 1호. 한국어정보학회. 67~73쪽.
- 최현배(1927). 우리 한글의 世界文字上地位. 『한글 동인지』 1(창간호). 조선어학회. 54~56쪽.
- 최현배(1940·1982: 고친판). 『한글갈』. 정음문화사.
- 코리아 스토리 기획 위원회 편(2006). 『한글(자연의 모든 소리를 담는 글자)』. 허위미디어.
- 한재준(1996). 훈민정음에 나타난 한글의 디자인적 특성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17. 한국디자인학회. 57~58쪽.
- 한태동(2003). 『세종대의 음성학』. 연세대 출판부
- 헨드릭 하멜/김태진 옮김(2003). 『하멜표류기』. 서해문집. 136~137쪽.

- Hulbert.H.B.(1892a). The Korean Alphabet. Edited by F.Ohlinger, Mrs.F.Ohlinger. 『The Korean Repository』 Vol. I.1(January). Seoul: The Trilingual Press.
- Hulbert.H.B.(1892b). The Korean Alphabet II. Edited by F.Ohlinger, Mrs.F.Ohlinger. 『The Korean Repository』 Vol.III.3(March). Seoul: The Trilingual Press.
- Jared Diamond.(1994).. “Writing Right.” *Discover* 15-6(June); (이현복 간추려 옮김, 〈바른 글자살이〉, 《한글 새소식》 8, 1994; 이광호, 〈올바른 표기법〉, 《말글생활》 2(가을호), 말글사, 1994)
- E.O.Reischauer and J.K. Fairbank(1960). East Asia The Great Tradition.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 S. Robert Ramsey.(2010). “The Korean Writing System in the World of the 21 Century. SCRIPTA vol.2. The Hunminjeongeum Society(훈민정음학회). pp 1-13

<Abstract>

The Intergrated Research On the Excellence, Originality and
Scientific qualities of Hangeul(Hunminjeongeum)

Kim, Seul-ong

This paper makes the case that the concept of Hangeul's excellence can be expanded to include previous discussions on its originality and scientific qualities. Using this expanded concept, this paper comprehensively analyzes the current curriculum (which stipulates that the excellence of Hangeul be taught in the six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and the originality of Hangeul be taught in high school), critically evaluates problematic areas, and presents alternatives.

Scientific qualities, originality, practicality, and usefulness were selected as four elements of Hangeul's excellence. For each of the four elements, four types of qualities were examined to produce a total of 16 characteristics of excellence. Based on an investigation of the actual characteristics of Hangeul's excellence, this paper shows why Koreans need to discuss Hangeul's excellence.

By presenting the context of Hangeul's excellence, this paper establishes and gives significance to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basis for the education on Hangeul's excellence and originality.

【Key words】 Hangeul, Excellence, Science, Originality, Value of Hangeul, Hunminjeongeum